

|| 말씀 노트 ||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 118: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여섯 번 넘겼고,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집 안에 재앙이 다가옵니다.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난 후에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다윗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 시편 118 편 1 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 118: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 ‘감사하다’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yādâ)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인가를 ‘던지다’(throw, cast)라는 의미입니다. ‘던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활을 ‘쏘다’(렘 50:14)라는 의미와 웅덩이에 ‘던지다’(애 3:53)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변형되어진 과정을 생각해 보면, ‘던지다’라는 행동의 표현에서 상대에게 ‘고백하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고, ‘고백하다’는 의미는 ‘인정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5.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무엇을 인정하고 있기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다’라는 동사가 ‘인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본문이 욥기 40 장 14 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8 장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40 장 10-13 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교만한자들의 기백을 꺾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짓밟아서 땅 속에 묻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 40:14)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6.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욥에게 사용하시는 ‘인정하다’라는 단어를 인간이 하나님께 사용한다고 하면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7.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8.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를 우상 숭배와 동성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9. 또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6 가지 분류의 21 가지 목록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롬 1:28-32).

(롬 1: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10. 다윗이 시편 118 편 1 절에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야레’(yarê)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경외하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 남 유다 왕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하였을 때에 여호사밧이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하 19:9)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12.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시편 115 편 11 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 115:1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3.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작은 부분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입니다.